

# 월간 문화도시

돌아보기, —————  
—————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문화도시 수원 2011~2022

[인터뷰] 문화도시 수원을 함께 연 사람들

[동행공간] '유쾌한 생각의 집'에서 이야기를 쌓아요

[칼럼] 자유롭게 불순하고 즐거운 문화도시

[나도수원] 친애하는 너에게 소개하고픈, 수원 책 맛집 여행

## 제5호



# 한눈에 보는 '문화도시 수원'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문화 활성화 정책입니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가치 아래 2020년 7개 도시가 1차 선정된 이후, 2021년 5개 도시, 2022년 수원 등 6개 도시를 포함하여 총 18개 도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은 2011년 문화도시 조례 제정, 2014년 기초연구를 거쳐,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을 기점으로 문화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첫발을 떤 것입니다. 수원은 도시가 가진 역사와 전통, 문화와 생태자원, 시민 거버넌스 경험 등 고유의 특성에 기반하여 대도시로서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준비작업들을 거쳐왔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2021년 12월 23일, 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서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 2011 ~ 22

## 문화도시 수원이 걸어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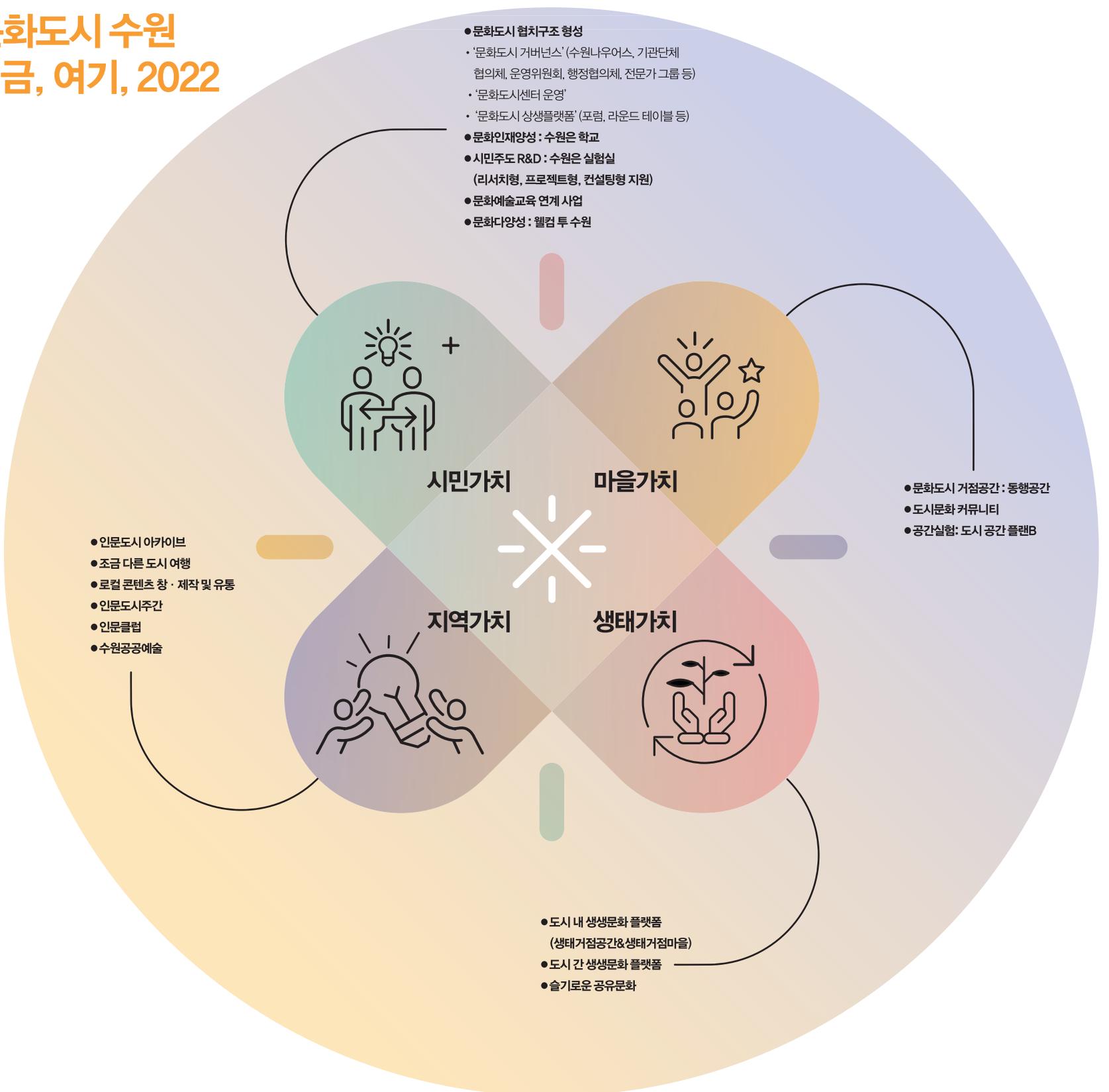
2022년은 문화도시 마중물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법정문화도시 원년의 해입니다. 시민, 마을, 지역, 생태가치를 바탕으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5년의 여정을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월간 문화도시 수원〉 5호는 문화도시 수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소중한 순간과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내일의 이야기를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과 함께 해주세요. (편집부)

# 2022 now!

## 문화도시 수원 지금, 여기, 2022



# 문화도시 수원을 함께 연 사람들

여기, 문화도시 수원을 함께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원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그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대화 나누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한 발 두 발 함께 걷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김상래, 안상욱, 최지연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 짧지만 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 정리\_김연임(편집부)

## 김상래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작가

안녕하세요, 수원시립미술관 도슨트, 동화책 작가, 수필 작가,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상래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제 첫 책 <실은, 엄마도 꿈이 있었어>를 출간하였습니다.

###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원 시민협약체 '나우어스'의 지속가능성 분과에서 매주 수원의 다양한 의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가령,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활동이나 사업 참여자의 성장,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생, 베란다 정원 같은 친환경 주거 공간 만들기도 있었고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학교가 유기적으로 문화, 예술을 공유하는 방안 등도 이야기 나누었지요. 사실 초, 중, 고등학교를 수원에서 나왔지만, 수원을 잘 몰랐습니다. 시민리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원 곳곳을 알게 되었고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글 속의 여러 꼭지들 역시 문화도시 수원 활동으로 채워졌고요, 동화책 작가의 꿈도 있었는데 '시티플레이어' 지원사업 덕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올해 예정 중인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숨털씨앗'이라는 팀명으로 수원의 아동들을 위한 <수원화성과 비밀의 문>이라는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수원을 위한 동화책 2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 '영상방명록'을 통한 문화벨트를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숨털씨앗' 멤버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에게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어려운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제집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일 수 있다면, 이상적인 문화도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 안상욱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안상욱입니다. 저는 LH(옛 주공)에서 조경, 공동체, 도시재생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수원시좋은마을 만들기위원회 위원으로, 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현 수원도시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도시운영위원회는 법정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책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자문과 심의를 통해 수원시민의 역할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와 도시재생, 그리고 사회경제적 업무를 펼치고, 법정문화도시 수원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공동체와 자치에 바탕을 두고 행공동 등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연계시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 문화도시 수원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삶이 바뀌거나 영향을 받은 지점이 있나요?

'문화'가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로 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자치와 공동체 위에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대도시의 자치력이 강화된 만큼 시민의 자치와 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생활문화를 잘 살려내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 선생님이 꿈꾸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수원화성이라는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예술문화와 시민의 생활문화가 잘 어울려야 합니다. 문화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상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수원을 꿈꿉니다.

## 최지연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시 전반에 걸친 문화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최지연입니다.

저는 정책연구자이다 보니, 문화도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제안하고 때로는 직접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수원특례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와 연계된 인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문화도시 시책 중 하나인 문화지구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화도시 수원에 기대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평가도 있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거기에 맞는 당장의 성과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가는 것이 더 오래 가는 결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문화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문화를 만들고 즐기고 누리며 이를 바탕으로 활력을 얻고 성장을 지속해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시민들이 문화로 인해 행복해지는 도시라고 하면 될까요?

### 선생님께서 수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서호요, 서호 바로 옆에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요. 제 자리에서는 서호가 보이기도 하고 점심 먹고는 종종 이곳 산책을 합니다. 세련되게 가꿔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움이 좋습니다.

# 시민과 문화가 만나는 우리 동네 문화플랫폼 '동행공간'

## '유쾌한 생각의 집'에서 이야기를 쌓아요

김소라\_랄랄라하우스 책방지기, 작가

책은 물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감정을 통해 한 사람의 내면세계가 구축되기도 한다.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한다. 글 쓰는 일을 하면서 작업실 겸 책방 같은 공간을 꿈꿨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쓴다면 어떤 욕심도 없을 것만 같은. 2020년 2월 중순, 수원 매탄동의 골목에 작은 책방 '랄랄라하우스'를 만들었다. 책방 이름은 좋아하는 소설가 김영하의 2012년도 출간된 에세이 제목인 '랄랄라하우스'에서 따왔다. '묘하고 유쾌한 생각의 집'이라는 책의 부제가 마음에 들었다. 공간을 꾸미고, 좋아하는 책으로 채우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책을 판매하는 일련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책을 팔아서 먹고살 수 있을까?" 생계에 대한 고민은 내려놓았다. 다른 일을 겸업하는 책방으로 철저히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권을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은 커피 한 잔,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다. 막상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책을 읽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그럼에도 책방을 통해 기대하고픈 일이 하나 있었다. JT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에 나오는 낯은 기와집을 개조해서 만든 '굿나잇 책방'처럼 사람들과의 만남과 연결이 이뤄지는 서점 말이다. 책을 매개로 한 살롱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

책방을 오픈하는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함께 모여 그림책을 읽고, 필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돌아가면서 소감을 이야기했다. 팬플룻 연주자의 공연도 있었다. 참가한 분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다고 좋아했다.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모인 크고 작은 커뮤니티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보다 발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공동체들의 활발한 활동은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확장, 지속할 수 있는 토양이 되지요. 문화도시 수원인 시민, 예술인, 기획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바로 '동행공간'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 '문화도시 동행공간'을 통해 23개소에서 2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1,18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첫해인 올해에는 화성, 북수원, 서수원, 광고, 영통 등 다섯 개 생활권역에서 동행공간을 60곳으로 늘려 더욱 활발한 대화와 실천, 도시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비슷한 관심사와 취미를 함께 하면서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는 문화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도시 수원의 '동행공간'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또 다른 날은 <빨강머리앤> 책 이야기를 하면서 빨강머리앤이 그려진 작은 천으로 북마크를 만들었다. 바느질을 하면서 책토론을 하는 재밌는 시간이 되었다. 그 이후로도 재미난 만남을 이어나갔다. 그림책모임, 소설모임, 낭독모임, 필사모임, 토론포임, 드로잉모임, 영화모임, 타로모임, 핸드드립커피모임, 북토크, 예술토크 등 새로운 일들을 꾸려나갔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상시운영이 힘들어 예약 책방으로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문화공간으로서의 책방이라는 정체성을 더 키워나가야 했다. 동네 책방으로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할 무렵 때마침 책방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 생겼다. 문화도시 수원 '동행공간'이라는 사업이다.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공간을 알리고, 공간 운영자들의 네트워크가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책방에서 하고 싶었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운영지원금이 생긴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나다움을 발견하는 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책방을 예술공간으로 만들고, 나의 이야기를 예술적인 창조물로 만들었다. 생각보다 일부러 멀리서 찾아주는 분들이 계셨다. 매시간 창작자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자신만의 결과물도 만들었다. 업사이클링아트, 아크릴화, 향수, 이야기책 등을 만들었다. 우리 모두가 작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에 몰입했다.

책방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은 상당하다.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만 책방에 오는 것이 아니다. '랄랄라하우스'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을 좋아한다. 그리고 책방주인인 나, 김소라 작가를 만나러 오는 곳이기도 하다. 책방에는 책이 있고, 책방주인이 있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배움이 주는 즐거움이 더해진다. 오래전 꿈꾸었던 '작은책방'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나니 점점 하고픈 것은 늘어간다. 시공간의 한계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외로움과 단절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서툴다. 관계의 문제를 겪으며 상처받고 사람들을 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수의 친밀한 만남이 이뤄지는 작은 동네의 놀이터 같은 곳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책을 매개로 한 건강한 만남은 관계를 확장시키고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 지금까지 없던 책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발견의 장소로서의 책방. 이렇게 랄랄라하우스는 문화도시 수원 동행공간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는 '유쾌한 생각의 집'을 짓는 중이다.

영통구 산남로 41-1  
10:00~18:00 운영, 토/일요일 휴무  
@lalala.house

# 자유롭고 불순하고 즐거운 문화도시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2018 수원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컨설턴트로 수원과 연을 맺었다. 문화와 예술, 쓸데없는 짓, 쓸모없는 사람, 버려진 곳곳이 우리 삶을 구원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문화기획자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문화도시의 기치 아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차에 걸쳐 18개의 도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도시 모두 특별하지만, 그중 영등포는 서울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딛고 지정되었고, 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 각 도시의 특별함은 역사, 자연, 산업, 건축, 교통, 전통, 교육환경, 예술 등의 다름에서 비롯되는데 무엇보다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의식과 경제 수준, 주거형태, 그리고 특히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이러한 특별함을 잘 살피며 도시가 나아갈 바를 새롭게 정립하고 문화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도시의 변화를 추동해 가는 사업이 곧 문화도시 프로젝트다.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

-제1회 문화도시 박람회 슬로건

금융서비스업 밀집지, 도심기술업과 예술인 밀집지, 중국교포 최대 밀집지, 천과 강으로 둘러싸인 지형 등 영등포의 문화적 다양성과 자연환경, 그리고 공공서비스와 주거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주민들 간 생활권역의 경계가 열린 서울의 자치구라는 특성은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슬로건을 “우정과 환대의 이웃”이 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이라는 문화도시 수원의 슬로건은 위민(爲民)의 역사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인구 120만의 도시가 갖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2018년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예비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컨설턴트로서 내가 제시했던 수원의 문화 비전은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며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문화책임도시, 수원]이었다. 2018년 후반부터 나를 이어 총괄기획자로 결합해, 현재의 문화도시 수원 조성계획의 틀을 수립한故 이채관 선생은, 이를 보다 정교한 문화적 언어로 정리하면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시하였다.

“서로를 살핀다는 것은 서로의 처지를 살피고 서로 의지하며 지속가능한 따뜻한 도시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고, 문제에 맞선다는 건 급속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도시문제에 문화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채관 (1968~2021, 前 문화도시 수원 총괄기획자)

2018년 당시 나는 문화도시 수원을 설명하는 핵심 원리를 ‘수원은 학교’로 설계했다. 그 이유는 첫째, 수원에는 인문, 예술, 디자인,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등 도시가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도록 활동해온 주체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로 서로의 삶을 살피고 책임지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이해나 이전의 관성적인 지역 내 이해관계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그것이 먹고사는 일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라는 틀이 필요했으며, 학교의 캠퍼스를 도시 전체로 상상하면서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 건축, 예술, 자연환경 등의 활동가를 교수로 초대하고, 학습자원으로 삼아 배우고 일하는 시민들이 많은 도시가 문화도시라 여겼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도시 수원 조성계획>은 4개의 가치체계(시민, 마을, 지역, 생태)에 따라 25개의 사업을 배치하고 있는 구조인데, 중심 사업영역은 ‘수원은 학교’, ‘수원은 실험실’, ‘문화도시 거점공간’, ‘로컬 창·제작 유통’이며, 특성화 사업

영역은 ‘인문도시주간’, ‘공공예술’, ‘인문클럽’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배움, 실험, 제작과 실행, 유통과 확산이라는 프로젝트 프로세스와 기반이 되는 거점공간과 플랫폼으로서의 축제, 그리고 주도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로서의 시민체제로 구조화하면서 문화도시의 구성과 운영원리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도시의 운명은 시민의 주도성에 기반한 상상력에 의해 결정되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를 통해 실현됩니다”

- 이채관

故 이채관 선생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전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조언과 자문을 했는데 종종 문화도시 정책이 추진되는 방식을 아쉬워하곤 했다. 문화와 예술이 행정의 견고한 틀에 맞추려 할수록 상상력이 사라지고, 당대 정치에 순응하는 순간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문화도시 수원 조성계획에 있어 인구 120만 명이 살아가는 수원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시티메이커스, 시티플레이어, 실버스토리텔러 등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도시 프로젝트에 다양한 경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참여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서로서로 살피고, 그들을 즐겁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맞서는 자유롭고 불순하고 즐거운 계획을 문화도시 수원의 서사로 담아내려 했다.

“문화도시를 설명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도 매력이 없습니다”

- 이채관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그렇다면 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문화시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집들이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주인은 초대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청소하는 사람이고 환대하는 사람이다. 집 구경을 시켜주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같은 맥락으로 문화도시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는 동네와 마을을 아끼고 가꾸면서, 낯선 누군가를 초대하고 환대하며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기억을 가까이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일 거다. 오랜 시간 이미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지닌 수원이 문화도시 정책을 통해 보다 고양된 문화도시로 나아감은, 우리 도시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주인으로서의 각성이다. 이러한 주인들이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럴싸한 축제나 하드웨어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유롭고 스스로도 즐거운 ‘사건’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며, 그러한 이야기가 도시 곳곳에 넘쳐나며 생동하는 도시가 곧 문화도시다.

“문화도시를 콘텐츠 베이스가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가 반영된 힘으로 인해 도시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 이채관

# 문화도시 수원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 '조금 다른 도시여행'

문화도시수원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문화도시수원>

'조금 다른 도시여행'은 수원의 로컬콘텐츠와 사람, 문화자원을 연결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도시여행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이 직접 테마를 정하고 이에 맞는 장소들을 선택하고 그 동선을 따라 소소한 볼거리, 즐길 거리, 이야기를 꿰어내면 특별한 여행코스가 탄생합니다. 지난해 늦가을, 여섯 개의 특별한 여행코스를 따라 100여 명의 시민이 삼삼오오 곳곳을 누비며 문화도시 수원의 매력을 재발견했습니다.

수원에 살지만 자세히 모르고, 수원을 알지만 찬찬히 만끽해보지 못했던 반짝이는 구석구석을 만나고 싶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조금 다른 도시여행'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에 앞서, 지난해 만들어진 여섯 개의 도시여행 가이드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 #1. 수원 향교로 근대 문화유산 기행 #2. 느릿느릿 골목 책방 여행 #3. 정조의 길, 나의 길
- #4. 당신은 모르는 팔딱산 이야기 #5. 숲명 나뭇 #6. 수퀴즈 온 더 블럭

## 친애하는 너에게 소개하고픈, 수원 책 맛집 여행

장월희\_ '느릿느릿 골목 책방 여행' 프로그램 기획자



느릿느릿 골목 책방 여행(유튜브영상)

햇살 좋은 요즘, 화서문 둔덕을 따라 장안문 쪽으로 걸으면 누런 잔디 사이 은근히 올라오는 초록 기운에 기분이 좋다. 내려다보이는 행궁동 거리에도 봄날을 즐기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화성이 유명해지면서 예쁜 카페나 음식점도 많이 생겼다. 인별그림에서도 행궁동 카페는 핫하다고 들었다. 이런 활기찬 변화가 좋기도 하다가 원주민이 사는 곳이 하나둘씩 상가로 바뀌는 모습이 아쉬울 때도 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작년 가을 '느릿느릿 골목 책방 여행'을 기획해 보았다. 알록달록 가을에 물든 골목길 책방에서 찾은 책의 어느 구절을 생각하며 성벽을 따라 걷는 모습을 상상한다. 시간이 쌓이고 걸음이 쌓여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았으면 하는 곳, 숨은 골목 사이 개성 만렙의 책방지기들이 있는 곳, 이야기 한가득 품고 기다리는 골목 안 작은 책방을 소개한다.



《**브로콜리숲**》은 이름에서도 몽글몽글 귀여움이 연상되는데 계단 따라 올라간 2층 책방 안도 예상대로 아기자기하다. 입구에 들어서면 그림책 작가들의 엽서와 포스터 등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반대편 서가엔 독립출판물들이 그 새로움과 독특함을 뽐뽐댄다. 안쪽 서가로 들어가 앉아 맛난 책 한 권 읽으면 꿀맛일 듯하다. 언니, 동생이 무작정 행궁동이 좋아 가장 먼저 만든 책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숲 그늘에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책래**》 조선특화책방으로 한옥 책방이다. 한옥 짓는 신량이 만들고 역사를 좋아하는 아내가 책방지기를 한다. 긴 역사 중에서도 조선의 역사에 매료되어 시즌별 다른 테마로 북큐레이션을 선보인다. 이번엔 '조선의 그녀들, 그리고 지금 여가 언니들'이라는 주제로 조선의 여성들과 현대의 여성 관련 책을 나란히 전시하고 있다. 왕의 삶과 정치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이야기라던가 조선 후기 대학자 다산과 연암의 이야기 등 다양한 기획전으로 만날 책들도 기대된다. 오늘 같은 날 뒷마루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 보면 역사 속 인물이 훨씬 가까이 느껴질 듯하다.



《**작은도서관 책고집**》 행궁동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책고집이다. 실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선 시즌별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열린다.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강의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다. 강의를 없는 평일은 한산하니 구경삼아 따뭇 식힐 겸 들어가도 좋다. 라운드 계단을 오르면 높은 돔 천장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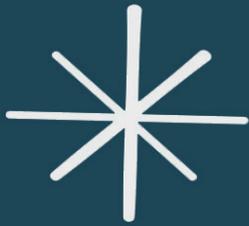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관광지가 아닌 동네 책방으로 지역 내의 책방의 역할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보여주고 싶었다. 《**낮설여관**》이 있는 곳은 내가 사는 동네이고, 아직도 신혼인 책방지기 부부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큰 간판도 없고 1층도 아니어서 사람이 없을 듯하지만 아니다. 책방, 사진관, 제로웨이스트숍이라는 낮선 세 영역의 절묘한 합으로, 매일매일 유명해지고 있다. 책을 보러 왔다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 찍으러 왔다가 세제를 사가기도 한다. 어떤 날은 잘 모은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가기도 한다. 책방을 넘어 동네의 사랑방으로 동네의 시간을 기록하며 오래가길 바란다.

손잡은 엄마와 딸, 둘만 찍는 사진이 어색해 웃던 부부, 많이 닳은 중년의 언니와 동생, 용감한 젊은 엄마 등 참여자분들 모두와 함께해 더욱 즐거운 여행이었다. 느릿느릿 걷기 좋은 날씨다. 동네 골목 책방에서 한가로운 책과 노니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SUWON HUMANITIES CLUB

# 인문클럽

월 품과 배려 / 존중과 현대 / 공동체 활동 / 로컬, 청년문화 / 생태환경



예술인

시민공동체



문화기획자



SUWON X NOWUS — GROUP

문화도시 수원의 바탕이 되는

활동가 그룹



인문클럽 가입하기

<https://bit.ly/인문클럽>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monthlyswcc@gmail.com](mailto:monthlyswcc@gmail.com)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nthlyswcc@gmail.com](mailto:monthly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00구 00동), 휴대폰 번호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상품 발송은 모바일로 진행되며 당첨자의 사정으로 인한 발송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발행정보

발행일 2022.4.28.

발행인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이선옥 수원문화도시센터장

기획인 황지아 정책기획팀 주임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제작 프로젝트 공리

디자인 FLINT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